

##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행동유형

김 영 희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 Fathering Activities Patterns

Kim, Young 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ung, Korea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ypes of fathers who engaged in different patterns of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by different fathering patterns. Data are collected from 323 married men with the oldest child under 12 years ol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thering activities are composed of four factors, which are affective involvement, caretaking, social involvement and discipling. The respondents tend to exhibit the level of fathering activities higher than middle point. Second, using cluster analysis, three types of fathers are categorized: The affective type fathers scored significantly high on dimensions of affective involvement. Whereas the engaged fathers scored the highest on all domains of fathering, the disengaged fathers demonstrated significantly limited involvement. Third, the characteristics which are associated with fathering activities patterns are father's age, job type, work hour, frequency of meetings after work hour, job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fathers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fathering activities patterns, children under 12 years old, affective type, disengaged, engaged.

### I. 서론

최근들어 가족구조,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성 역할, 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화로 인하여 남성들의 가족역할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 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부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

한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시민 운동에서는 과거 가부장적인 권위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엄격한 아버지의 모델에서 벗어나 서구식의 양성적인 아버지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성회복 운동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가정 내 아버지 부재 현상에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아버지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자녀중심의 가족관이 깔려있다(이세용 1997).

그러나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사회에서 아버지 역할 참여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형태보다는 함께 놀아주는 형태가 우세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으며(김영희 1994; 장미나 1994),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 등의 정서적 표현을 나타내는 온정적 양육행동에 직업특성의 영향을 강조하였다(강란혜 2000).

그런데 한경혜(1994)는 아버지 역할행동의 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과는 달리 아버지 역할행동이 다양한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요인분석을 통해 증명하여 아버지역할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차원적인 성격의 아버지 역할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중요한 제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아버지역할 유형은 한가지 행동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교차하면서 구성되기 때문에 영유아동기 자녀와 다양한 패턴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아버지 유형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아버지 유형을 유형화해야 하는데 유형화 작업은 다수의 개별 사례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적은 수의 군집으로 축약하는 것으로, 자연상태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설명력있는 개념으로 만들며 변수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성미애·옥선화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실제로 어떻게 아버지역할에 참여하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성된 역할행동을 수행하면서 보이는 아버지역할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화된 각 집단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특성 및 정서적 경험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

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적극적 아버지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한국사회에서의 아버지역할 참여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역할행동이 자녀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버지 역할참여 내용이나 정도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Barnett·Baruch 1987; Crouter et al. 1987; Volling·Belsky 1991)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 못지않게 표현적인 부모역할과 적극적인 양육태도 등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능력을 밝히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아버지세대와 달리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로 탈바꿈, 즉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s)가 탄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LaRossa(1988)에 의하면 미국사회에서 아버지문화는 빨리 변화한 반면 실제 아버지 역할행동은 변화의 속도가 느린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참여와 비교하였을 때 아버지의 참여시간은 꽤나 적은 것으로 자녀양육은 아직 어머니의 일차적인 책임으로 남아있어,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자신을 이차적 부모(surrogate parents)나 어머니의 조력자로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중류층의 백인 아버지들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에 참여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기본적인 제한된 양육행동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Jain·Belsky 1997).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행동을 관찰하며 나타나는 연구결과에서도 아버지 역할 참여정도가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소영 2000).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기본양육과제를 수행한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김영희 1994), 아버지 역할참여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번 정도이

며 몇몇 양육과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4번 이상의 참여를 보일 때 이를 규칙적인 활동이라 간주한다면(Nugent 1991; 김영희 1994에서 재인용) 이같은 참여율은 규칙적인 양상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장미나(1994)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 역할 중 자녀와 놀아주는 형태가 우유먹이기, 목욕시키기와 같은 자녀 돌보기 형태보다 높게 나타나, 양육보다는 놀이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일반적인 아버지역할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역할이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남성들이 직업역할로 인하여 아버지 역할 수행에 방해를 받는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 직업의 종류 등 직업의 구조적 특성 뿐 아니라 직업 역할의 만족도나 스트레스 등이 자녀 양육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역할에 대한 규범이 분명하지 않고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대표할만한 모델도 없는 상태로, 현 세대의 남성들은 현존하는 부양자 역할에 대한 요구와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소영 2000).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또는 아동을 둔 아버지역할을 측정할 때 자녀양육 참여도(양미경 1996; 이정순 2003)나 역할몰입(김소영 2000), 기본 양육과제 및 놀이 과제(김영희 1994; 장미나 1994)등을 사용하였다. 강란혜(2000) 및 양장애(1999)의 연구에서는 애정적, 온정적 양육행동의 단일차원으로 아동기 자녀에 대한 역할행동을 측정하였으나, 한경혜(1999)의 연구에서는 이를 요인분석하여 정서적 참여, 직접양육 참여, 훈육지도 등 다차원적인 성격으로 구분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다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된 아버지 역할 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영유아기 및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유형화한 연구는 찾기 힘들며, 서구에서는 미국으로 이민간 인디안 아버지들이

그들의 영유아를 키우며 상호작용하는 유형을 규명하여, 참여자, 비참여자, 양육자 등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Jain · Belsky 1997).

## 2.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 유형과 관련되는 변수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요성과 함께 아버지역할 참여 관련변수나 결정요인들을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초기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나 상황변수와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역할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업역할에서 경험하는 직업역할 스트레스나 만족도(김소영 2000) 또는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지각, 평가 또는 태도(강란혜 2000) 등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특성,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남성들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서 젊은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이나 자녀와 관련된 일상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강란혜 2000; 한경혜 1999). 그런가 하면 젊은층이 직업경력상 초기단계에 속하므로 에너지와 시간을 더욱 투자하도록 구조화되고 따라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양미경 1996; 조원지 2001).

교육수준과 아버지역할 참여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참여 정도가 높다는 결과(한경혜 1999)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역할참여간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많이 있다(김소영 2000; 김영희 1994; 장미나 1994). 소득이 많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더 참여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이성희 · 한은주 1998), 아버지의 소득은 아버지 역할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해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장미나 1994). 장미나(1994)에 의하면 소득은 직업역할을 통하여

아버지가 가정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소득이 높은 남성일수록 아버지역할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부인의 취업 여부는 남성의 가족 역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 Crouter 등(1987)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취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두배정도 높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은 부인의 취업 여부와 아버지 역할 수행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김영희 1994; 김소영 2000), 오히려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아버지 역할 수행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이성희·한은주 1998), 이는 부인이 취업주부인 경우 확대가족의 가족원이 적극적으로 대리양육을 하거나 보육기관 이용 등 사회적 지원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직업특성 변수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을 제한하는 다양한 직업 변수들이 있으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과중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을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버지 역할 수행의 장애 요인으로 과반수가 넘는 대상자들이 시간 부족을 들었으며(이성희·한은주 1998),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자녀양육참여가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4). 김소영(2000)은 평일 퇴근 후 모임참석 횟수가 적은 경우 많은 경우에 비하여 아버지 역할몰입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직종에 따른 차이를 탐색한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높은 역할참여 정도를 보인다는 것이다(장미나 1994).

## 3) 정서적 특성 변수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로서 느끼는 부모역할 만족이 비교적 높게 나타는데, 이같은 결과는 많은 아버지들이 역할수행을 자녀와 놀아주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종종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LaRossa, 1988). 김소영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양육 참여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방식을 보일 때 높은 수준의 참여행동이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DuBois et al. 1994).

직업역할 만족과 아버지역할 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직업역할에 만족할수록 아버지역할 수행이 높다는 결과에 의하면 (이성희·한은주 1998; Volling·Belsky 1991), 남성에게는 직업 세계는 생활의 중심적인 영역으로, 직업 역할에서 만족을 느낀 아버지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역할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자녀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역할 만족도와 아버지 역할참여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상당수 있다(김소영 2000; 장미나 1994).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부성문화와 아버지 역할 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한경혜 1999의 자료)의 일부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는 1998년 5월에서 8월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그 중 전체자료에서 영유아기 또는 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 남성 332명을 추출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6.9세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 21.1%, 초대, 대졸 54.2%, 대학원졸 24.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주관적 경제수준을 조사했을 때 '중'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하'가 25.6%, '상'이 6.9%순이었다.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관리직 및 사무직'이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30.0%, '생산직 및 서비스직' 18.3%, '자영업'

12.6% 순이다. 조사대상자의 부인의 취업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7.8%를 차지하고 있다. 첫째자녀가 속한 시기는 영유아기가 28.9%, 초등학교인 아동기가 71.1%였으며, 아들이 50.3%를 차지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부인취업여부, 첫째자녀의 연령 및 성), 직업특성(직종, 근무시간, 퇴근후 모임빈도, 직업역할 만족도), 아버지 역할 참여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한경혜(1999)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아버지의 역할행동을 구성하는 22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각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자주한다'까지의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역할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분 분석방법에 따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는데, 하위영역인 정서적참여(8문항), 직접양육참여(6문항), 사회적역할 참여(5문항), 훈육참여(3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alpha=0.71$ ,  $\alpha=0.75$ ,  $\alpha=0.73$ ,  $\alpha=0.62$  이다. 직업역할 만족도는 한경혜(1999)가 사용한 직업역할 척도중에서 직업역할에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및 만족 등을 묻는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크론바하의  $\alpha$ 값은 0.63이다.

아버지의 역할행동 유형을 나누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형화된 집단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chi^2$  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역할의 참여 정도

영유아 또는 아동기 자녀를 둔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 참여정도의 전반적 경향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정서적 접촉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동을 반영하는 정서적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Fathering Activities

	Mean	SD	Range (Middle point)
Affective Involvement	26.05	4.61	8-40 (24)
Caretaking	21.23	4.37	6-30 (18)
Social Involvement	18.99	3.27	5-25 (15)
Disciplining	11.78	2.16	3-15 (9)

참여는 평균점수가 26.05점으로 중간값인 24점보다 높은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즉,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직접 표현하거나 자녀가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하는 행동 등을 '보통'에서 '가끔'하는 정도이다. 목욕 시키기, 우유 또는 밥먹이기 등 직접적 돌보기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된 직접양육 참여는 평균점수가 21.23점(중간값 18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적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역할 참여는 가족 외적 활동과 관련된 아버지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평균 18.99점으로 전체적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훈육 참여의 평균점수는 11.78점으로 중간값인 9점보다 높은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식사예절 지도 혹은 글자, 숫자 등 공부를 가르치는 훈육지도를 '가끔'에 가깝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버지 역할행동의 유형화

아버지의 유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아버지 역할 행동의 4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요인에서 하나의 집단 평균점수가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후 결정하였는데, 일원분석분석과 Sheffe-test 결과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표 2>에 의하면 아버지 역할 행동의 하위요인 모두  $p<0.001$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가지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집단으로 적절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각 집단간의 점수순위를 살펴보

Table 2. Mean Fathering Activities Scores for Cluster-Identified Groups

fathering	cluster I (n=141)		cluster II (n=60)		cluster III (n=99)		F (df =2,297)
	Mean	Sheffe	Mean	Sheffe	Mean	Sheffe	
affective involvement	29.7	A	19.9	B	30.5	A	208.6***
caretaking	21.0	B	16.0	C	24.9	A	176.0***
social involvement	18.7	B	15.2	C	21.7	A	149.2***
disciplining	11.7	B	9.3	C	13.5	A	146.8***

\*\*\*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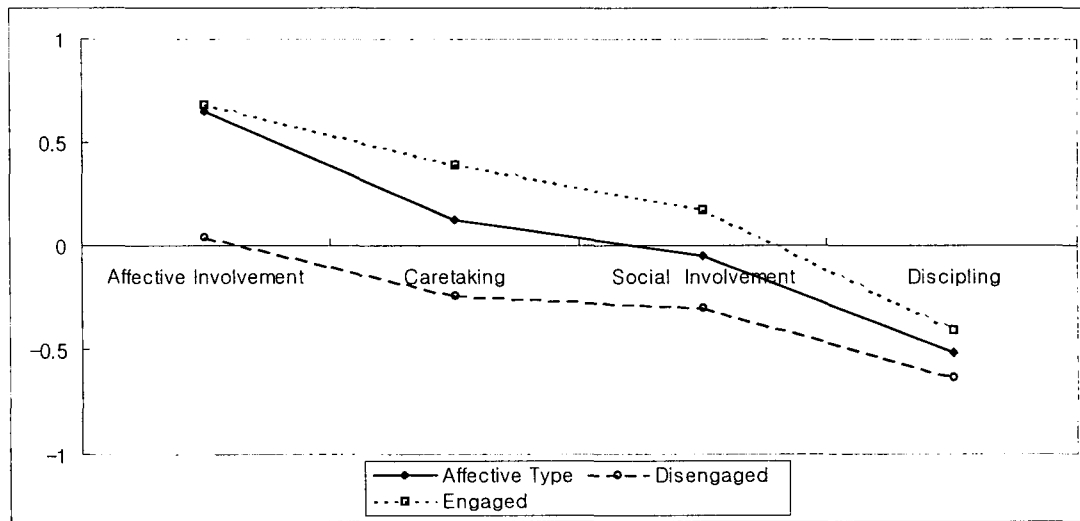


Figure 1. Group profiles on standardized clustering variables

면 정서적, 직접양육, 사회적 역할, 훈육참여 등 모든 점수가 집단III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집단 I이며, 집단II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은 아버지역할행동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3개의 집단으로 도형화 해본 것이다. <그림 1>에 의해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I은 정서적 참여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등 자녀와 정서적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정서적 참여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유형이 전체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이다. 유형II는 아버지역할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제한적이며 저조한 참여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소극적 참여형'이라 명명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가장 적다. 유형III은 앞의 2가지 유형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와같은 유형은 아버지역할을 다차원적으로 높

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참여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이다.

### 3. 아버지의 역할 유형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비교

앞에서 분류한 아버지역할 유형별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특성 및 정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연령은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적극적 참여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나이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강란혜 2000; 한경혜 1999)와 일치한다 하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 그리고 부인의 취업여부는 역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haracteristics in Fathering Activities Clusters

variables		cluster I (affective type)		cluster II (disengaged)		cluster III (engaged)		$\chi^2$ or F
		freq.	(SD) or(%)	freq.	(SD) or (%)	freq.	(SD) or(%)	
age		37.4	(4.8)	37.5	(4.0)	36.2	(4.4)	2.63*
education	middle sch.	4	(2.8)	2	(3.3)	2	(2.0)	3.43
	high sch.	26	(18.4)	14	(23.3)	13	(13.1)	
	college	74	(52.5)	31	(51.7)	56	(56.6)	
	graduate	37	(26.2)	13	(21.7)	28	(28.3)	
SES	low	33	(23.6)	15	(25.0)	23	(23.5)	0.75
	middle	98	(70.0)	41	(68.3)	66	(67.3)	
	high	9	(6.4)	4	(6.7)	9	(9.2)	
wife's job	yes	59	(41.8)	19	(31.7)	43	(43.4)	2.40
	no	82	(58.2)	41	(68.3)	56	(56.6)	
occupation	professional	40	(29.2)	11	(20.4)	37	(37.8)	5.16*
	non-prof.	97	(70.8)	43	(79.6)	61	(62.2)	
work hour		10.1	(1.9)	10.5	(1.6)	9.8	(2.0)	3.86**
freq. of meetings after work hour	none	40	(29.0)	14	(24.1)	29	(29.9)	11.66*
	#2-3/month	37	(26.8)	12	(20.7)	33	(34.0)	
	#1/week	34	(24.6)	16	(27.6)	27	(27.8)	
	#2-3/week	27	(19.6)	16	(27.6)	8	(8.2)	
job satisfaction		12.0	(2.9)	11.5	(2.5)	12.6	(3.1)	2.63*
child rearing attitude		3.2	(1.1)	2.4	(1.0)	3.3	(1.1)	13.4***

\* p&lt;0.1 \*\* p&lt;0.05 \*\*\* p&lt;0.01

조사 대상자들을 직업특성에 의해 비교해볼 때, 먼저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전문직 종사자들은 적극적 참여형, 정서적 참여형이 많았으며. 반대로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 등의 비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참여형이 많이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적극적 참여형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맥락으로 평일에 퇴근후 모임참석 횟수 또한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즉, 적극적 참여형 또는 정서적 참여형의 경우 아버지들은 퇴근후 바깥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주일에 2-3번 이상이라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퇴근후 모임횟수가 적으면 집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추측된다.

직업역할 만족도 역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적극적 참여형의 전반적인 직업역할 만족도

가 가장 높고, 소극적 참여형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정서적 특성변수인 양육태도에 따라 대상자 유형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적극적 참여형의 경우 소극적 참여형에 비해 아버지역할 수행에 더욱 온정적이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할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특성들이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강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들(김소영 2000; 장미나 1994; Barnett · Baruch 1987)과 일치한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그들 유형은 여러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332명의 아버지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역할 행동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중간이상의 참여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역할을 다차원적인 성격으로 간주할 때 정서적 참여, 기본양육, 훈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자들은 영유아 또는 아동과 가끔씩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양육 참여에서도 중간값(18점)보다 높은 참여수준(Mean= 21.23)을 보여, 김영희(1994), 장미나(1994)의 연구에서 양육과제 수행시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측면을 나타낸 것과 달리 양육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아버지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아버지역할의 적극적인 참여경향을 자녀의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다양한 역할 모델의 제시, 경험의 폭을 확대하는 등의 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성, 사회성 및 지적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 유형은 정서적 참여형, 소극적 참여형, 적극적 참여형으로 분류된다. 모든 행동 영역에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낸 소극적 참여형과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역할을 수행한 적극적 참여형으로 구분됨은, 즉, 한가지 활동에 적극적인 아버지는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반대로 어떤 활동에 소극적인 아버지는 나머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3가지 아버지역할 유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참여수준은 현재 우리 사회 남성들의 아버지역할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참여형에 비해 적극적 참여형이 보다 많은 사례 수를 보인다는 사실은 양성적인 아버지가 부각되는 희망적인 조짐으로 판단된다.

셋째, 아버지 유형별 특성에서 파악된 특이한 점은 연령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종이나 근무시간 등 직업구조 특성 및 직업역할이나 아버지역할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적극적 아버지역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융통성 증가 등 직업구조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업측에서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의 요구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며, 가족지향적 기업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우리 나라에서 아버지역할에 대한 규범이 분명하지 않고 새로운 아버지를 대표할만한 모델도 없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아버지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부모역할 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인 부모역할 훈련은 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직장남성을 위한 사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버지역할 활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버지들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역할 행동에 관해 자녀의 연령이 벗어난 경우 회고적 질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다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관해(2000). 아버지 역할 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김소영(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4).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1), 43-56.
- 문혁준(2001).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애·육선화(2002). 가족연구에서의 유형화 연구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2), 1-13.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장애(1999). 아버지역할 수행에 관한 탐색적연구 I. 한국아동학회지, 20(1), 135-145.
- 이성희·한은주(1998). 기혼남성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16(2), 23-39.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595-623.
- 이정순(2003). 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 지, 24(3), 99-108
-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 만족도가 아버지 역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원지(2001). 아버지역할 수행, 직업역할 수행 및 직업역할에 대한 아버지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1999). 한국사회의 여성문화와 아버지 역할 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0, 177-228.
- Barnett, R.C & Baruch, G.K.(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 of Marriage & the Family, 49, 29-40.
- Crouter, A.C. & Perry-Jenkins, M. , Huston, T.L.& McHale, S.M.(1987). Processer Underl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31-440.
- Larossa, R.(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Jain, A. & Belsky, J.(1997). Fathering and Accultaration ; Immigrant India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J. of Marriage & the Family, 59, 873-883.
- Volling, B.L., Belsky, J.(1991). Multiple Der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 - 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61-474.